

新羅 宣德王・元聖王의 王位繼承

—元聖王系の 成立과 관련하여—

金 壽 泰*

I. 머리말

II. 宣德王의 即位過程

III. 元聖王의 即位過程

IV. 맺음말

I. 머 리 말

統一新羅는 주지하다시피 景德王・惠恭王代에 일어난 커다란 정치적 변혁을 겪고서 中代라는 한 시대가 끝나고, 下代라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으로써 中代末에 일어난 정치적 혼란이 바로 終息된 것은 아니었다. 宣德王代를 거쳐서 元聖王에 의한 王權強化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우 不安한 정치적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新羅 下代初에 전개된 정치적 상황에 대하여는 일찍부터 관심이 있어 왔다. 王位繼承에 있어서 血統의 차이라든가, 上大等・侍中 등 政治構造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대략 그 모습이 살펴졌던 것이다.¹⁾ 그렇

*忠南大學校 史學科 專任講師

1) 新羅 下代初 특히 宣德王・元聖王의 時代를 이해하는 데에 참고가 되는 연구로는 다음의 것을 들 수 있다.

末松保和, 新羅三代考(史學雜誌 57의 5, 6; 1949; 新羅史의 諸問題, 1954)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의 變革(社會科學 2, 1958; 新羅政治社會史研究, 1974)

——, 上大等考(歷史學報 19, 1962; 앞의 책)

지만 그것은 惠恭王의 死後 전개된 宣德王·元聖王代의 정치적 변화를 다룬 직접적인 연구는 아니었다. 그 결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으로 보이는 宣德王·元聖王의 即位過程이 보다 상세히 분석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元聖王系가 성립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宣德王·元聖王의 王位繼承을 살펴보고자 한다.¹⁾ 특히 宣德王·元聖王이 어떠한 정치적 배경하에서 즉위하였는가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자 한다. 먼저 宣德王의 即位와 그것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알아보고, 이어 元聖王이 金周元을 물리치고 即位할 수 있었던 배경을 검토하겠다. 이러한 검토를 통하여 新羅 下代初에 전개된 정치적 변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II. 宣德王의 即位過程

惠恭王의 死後 下代の 첫 王으로 金良相의 即位는 어떠한 정치적 배경하에서 이루어졌는가. 惠恭王의 죽음을 전후해서 일어난 정치적 변화를 중심으로 그것을 알아보자.

金良相의 即位를 가능케 한 惠恭王의 죽음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史料는 다음과 같다.

A) ① 於是滿月王后生太子 王喜甚 至八歲王崩 太子即位 是爲惠恭大王 幼冲故太后臨朝 政條不理 盜賊蜂起 不皇備禦 訓師之說驗矣 小帝既女爲男故 自期降至於登位 常爲嬀女之戲 好佩錦囊 與道流爲戲 故國有大亂 修爲宣德與金良相所弑 自表訓後

_____, 新羅 下代の 執事省(안의 책)

崔柄憲, 新羅 下代社會의 動搖(한국사 3, 1978)

李基東, 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歷史學報 85, 1980;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郎徒, 1980).

- 2) 宣德王과 元聖王의 王位繼承을 그 당시에 일어난 정치적 변화와 관련시켜 다룬 가장 代表的인 연구로는 李基白씨의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과 「上大等考」를 들 수 있다.

聖人不生於新羅云(三國遺事 2, 紀異, 景德王·忠談師·表訓大德)

② 二月 雨土 王幼少即位 及壯淫于聲色 巡遊不度 綱紀紊亂 災異屢見 人心反側 社稷杭隕 伊淦金志貞叛 聚衆圍犯宮闕 夏四月 上大等金良相與伊淦敬信舉兵 誅志貞等 王與后妃爲亂兵所害 良相等 諡王爲惠恭王(三國史記 9, 惠恭王 16年 2月 및 4月)

A—①의 三國遺事 기록은 景德王이 表訓大師에게 上帝를 움직여서 아들을 얻게 해달라고 부탁한 說話의 일부분이다. 여기에 惠恭王의 탄생과정이 자세히 언급된 후 惠恭王의 죽음에 대한 것이 간단히 기록되고 있다. 惠恭王은 即位 이후 제대로 王位를 수행하지 못하였는데, 나라에 큰 난리가 일어나자 宣德王 金良相에게 弑害를 당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A—①의 기록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는 이 때 宣德王의 즉위를 金良相 자신의武力에 의한 강제적인 王位의 탈취로서 파악하였다.³⁾ 즉 그의 即位는 實力에 의한 自立이라는 것이다.

宣德王의 即位를 이와 같이 A—①의 기록을 따라서 武力에 의한 강제적인 王位의 탈취로서 파악한 것은 특히 惠恭王代 金良相의 정치적 위치 및 활동과 관련시켜서 보았기 때문이다.⁴⁾ 金良相은 中代末에 일어난 反專制主義運動을 주도한 人物로서, 惠恭王 10년(774) 그가 上大等이 되면서 그의一派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專制王權의 옹호세력이 여기에 반발하여 여러차례 亂을 일으키자 이에 안심할 수 없었던 金良相이 A—②에 언급된 志貞의 亂을 진압하면서 惠恭王까지를 弑害하고 王位에 올라 中代를 붕괴시켰다는 것이다.

그런데 宣德王의 即位를 A—①에 언급된 기록과 관련시켜서 이해할 때에는 우선 史料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惠恭王의 죽음에 대하여 三國遺事의 것과는 전혀 相反되는 사실을 다른 기록이 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A—②인 三國史記의 기록이다. 三國史記에서는 三

3)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p. 237 및 上大等考, p. 118.

4)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이것은 주로 惠恭王代 金良相의 反專制主義的 政治活動에 초점을 모은 연구라고 할 수 있다.

國遺事와는 달리 惠恭王이 金良相에게 弑害를 당한 것이 아니라 惠恭王 16년(780) 2월에 叛亂을 일으킨 伊飡 金志貞의 兵에 의하여 弑害되었다고 한다.

한편 이러한 三國史記의 기록은 A-①과는 달리 오히려 신빙성이 높은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⁵⁾ A-①인 三國遺事の 기록이 惠恭王의 탄생과정을 중점적으로 다룬 說話로써, 그의 죽음은 부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또한 그 부분에서조차 가장 불확실한 사실의 기록이라는 점에서이다.⁶⁾ 그러나 A-②인 三國史記의 기록은 비교적 자세하고도 정확히 惠恭王이 弑害되는 전후의 사정을 언급하고 있다. 惠恭王의 失政에 대하여는 A-①과 일치하고 있지만, A-②는 惠恭王이 죽은 16년에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사건을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金志貞의 亂이 일어난 이유 및 경과, 이 亂을 진압한 金良相과 金敬信의 舉兵 사실, 그리고 惠恭王 뿐만 아니라 惠恭王의 后妃까지 포함된 亂의 희생자 등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A-②의 기록을 통하여 惠恭王의 죽음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다고 하겠다.

더우기 金良相은 中代末에 일어난 反專制主義運動에서 독자적으로 그것을 주도해 가면서, 자신의 武力으로 惠恭王을 弑害한 만한 정치적 위치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이 무렵 金良相과 같은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활동했던 金龜과 관련해서 알아볼 수 있다.⁷⁾ 景德王의 첫째 王妃였던 三毛夫人과 남매관계인 金龜은 景德王이 王權強化策의 일환으로써 아들이 없다는 이유와 함께 王妃를 出宮시키자, 이에 王權의 專

5) 三國遺事와 三國史記의 기록을 비교한 기존의 연구는 이 때 A-①인 三國遺事の 說이 옳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李基白, 앞의 논문, p. 237). 그것의 근거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다.

6) 修는 終의 잘못이며, 「宣德與金良相」은 「宣德與金敬信」의 잘못으로 이해되고 있는데(李丙燾, 譯註三國遺事, 1956, p. 247), 이와 같이 동일한 人物까지도 혼동하여 적고 있다. 그러므로 A-①은 기록의 전달에 있어서도 구체적이고, 정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7) 金龜의 정치적 활동이나 金良相과의 정치적 관계에 대하여는 拙稿, 「統一新羅期 專制王權의 崩壞와 金龜」(歷史學報 99·100, 1983)이 참고된다.

制化政策에 대항하는 정치성격을 가지고서 金良相 보다 오히려 反專制主義運動을 주도해 간 人物이었다.

이 때 金邕는 특히 金良相의 정치적 활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쳤던 것이다. 景德王末 政權의 교체를 가져온 金邕의 뒤를 이어 金良相은 中侍에 임명되었으며, 계속해서 聖德大王神鐘의 제작에 있어서 金邕을 도와서 부책임자로 활동한 바 있다. 또한 惠恭王 10년 金邕이 上宰의 職에 머물면서 정치상의 실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에도 金良相은 上大等으로 활약하였던 것이다.

惠恭王代 金良相의 이러한 위치는 A—②에 언급되고 있는 金志貞의 亂을 진압함에 있어서 보여준 그의 활동에서도 살릴 수 있다. 이 때 專制王權을 옹호하고 있는 세력의 회복을 위해 일어난 志貞의 亂은 일시 성공을 거두고 있었는데,⁸⁾ 金良相은 그의 독자적인 武力으로서는 그것을 진압할 수 없었다. 亂이 일어난 2개월 후에야 비로소

B) 初惠恭王末年 叛臣跋扈 宣德時爲上大等 首唱除君側之惡 敬信預之 平亂有功 治宣德即位 即爲上大等(三國史記 10, 元聖王 即位條)

라고 하여, 金敬信의 도움을 받아서 亂을 진압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다른 貴族勢力의 협력을 받아서야만 가능하였다.⁹⁾ 그러므로 惠恭王代 이러한 정치적 위치에 있었던 金良相으로서는 역시 自立하여 王位에 오르기 힘들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와 같이 惠恭王代 독자적으로 王位에 오를 수 없었던 金良相의 即位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그것은 A—②에 자세히 언급되고 있

8)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의 變革, p. 237. 여기에서 志貞의 亂을 反良相, 親惠恭王派의 움직임으로 다루고 있다.

9) 이 때 기존의 연구에서 惠恭王代 金良相의 上大等으로서의 위치를 너무 부각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新羅 中代 이래로 上大等の 정치적 권한이 늘 억제될 당하였다는 것이 (李基白, 上大等考, pp. 102~111) 사실이라면 이제 惠恭王代 金良相의 上大等 임명으로 보다 중요하게 되었겠지만, 그러나 당시 上大等에서 나올 수 있는 정치적 힘이란 여전히 일정한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듯이 惠恭王 16년에 전개된 정치적 상황속에서 일어난 惠恭王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관련이 있다.¹⁰⁾ 中代末 전제왕권의 옹호세력과 反專制主義 貴族勢力의 대립속에서 일어난 惠恭王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당시 金良相의 정치적 위치를 크게 부각시킨 것으로 보인다. 이 때 金良相은 정치적으로 여러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입장에 있었던 것이다.

우선 金良相은 惠恭王과는 姨從兄弟間으로,¹¹⁾ 또한 정당한 王位繼承者가 없을 경우 王位를 계승할 수 있는 上大等の 位에 당시 머물러 있었던 점을 들 수 있다.¹²⁾ 그러나 이러한 사실 이외에 보다 중요한 것으로 짐작되는 것은 宣德王이 가지고 있는 中間者的인 政治性格 때문이 아닐까 한다. 즉 惠恭王의 死後 中代에서 새로운 시대인 下代로 넘어감에 있어서 그가 反專制主義의이면서도, 동시에 中代 專制王權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二重的인 性格과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까닭에 惠恭王의 死後 金良相이 王位에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宣德王이 자신의 即位過程에 대하여 언급한 것이 있어 주목된다.

C) 是月 王瘵疾彌留 乃下詔曰 寡人本惟菲薄 無心大寶 難逃推戴 作其即位(三國史記 9, 宣德王 6年 5月)

宣德王은 위에서 언급되고 있는 遺詔에서 本質이 워낙 얇아 大寶 즉 王位에 마음이 없었다고 하면서 귀족들의 추대를 도피하기 힘들어 王位에 올랐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말은 자신의 의사대로 쉽게 王이 될

10) 惠恭王 10년 反專制主義 貴族勢力에 대하여 叛亂을 일으켰던 志貞의 兵에 의하여 惠恭王이 弑害된 것은 이들 王黨派의 惠恭王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8세의 어린 나이로 即位한 惠恭王은 女性的 性格의 所有主로서 한 때 母后가 攝政하는 등 제대로 정치를 수행해 나갈 수 없었으며, 反專制主義勢力이 政權을 장악한 이후에는 실질적으로 허수아비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pp. 231~236). 더우기 이들의 亂이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金良相 등에 의하여 진압될 때까지 惠恭王은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11) 宣德王은 聖德王의 外孫이었다(三國史記 9, 宣德王 即位條).

12) 李基白, 上大等考, pp. 99~101. 한편 이러한 측면에서도 金良相은 그의 즉위를 위하여 굳이 惠恭王을 弑害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수 없었던 것으로, 귀족들의 추대를 통해서만이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하는 당시의 사정을 나타내주는 것으로 보인다.¹³⁾ 이 때 反專制主義 貴族勢力은 그를 추대함으로써 당시 일시적으로 성공을 거둘 정도로 강력한 세력을 떨치고 있던 專制王權의 옹호세력의 거센 반발을 무마할 수 있으며, 동시에 下代政權을 성립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 宣德王의 即位가 가지는 過渡期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¹⁴⁾

따라서 이러한 즉위과정으로 말미암아 宣德王은 귀족세력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또한 이들 귀족세력의 向背가 그의 在位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실은 宣德王代에 전개된 정치적 상황을 통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다. 다음의 史料는 宣德王代의 정치적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주목이 되는 것이다.

D) ① 王欲遜位 群臣三上表諫 乃止(三國史記 9, 宣德王 5年 4月)

② 居位以來 年不順成 民用窮困 此皆德不符民望 政未合天心 常欲禪讓 退居于外 群官百辟 每以諫止 未果如意 因循至今(同上, 宣德王 6年 正月)

D-①은 宣德王이 그의 末年인 5년(784)에 스스로 讓位를 하려고 한 사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다. D-②인 6년(785) 그의 遺詔를 통하여도 그것은 확인된다. 이 때 宣德王이 讓位意思를 표명한 구체적인 이유는 D-②에서 언급되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러나 다만 「政未合天心」이라고 한 점에서 보아 당시의 政局이 매우 不安定한 것이

13) 金良相의 즉위를 貴族들의 추대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 申湜植씨의 경우 무열제인 金闥元을 견제하고 이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전략에서 金敬信이 당시 王位에 야망이 없던 金良相을 추대한 것이라고 한다.(武烈王系の 成立과 活動, 韓國古代史의 新研究, 1984, pp. 131~132). 이것은 金敬信이 자신의 지위확보를 위한 노력에서 나온 것으로, 그 결과 宣德王에 의하여 上大等에 임명된 것으로 보고 있다.

14) 한편 末松保和씨는 혈연적인 관계로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다(新羅 三代考, p. 31). 또한 申湜植씨도 이 의견을 따라 惠恭王末 이후 宣德王代는 良相, 周元, 敬信에 의한 파도체제로 정권이 유지되었다고 한다(武烈王系の 成立과 活動, pp. 131~132).

아니었던가 하는 의심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¹⁵⁾

이러한 정치적 불안이 어느 계통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것인지를 잡자기 살필 수 없으나,¹⁶⁾ 宣德王의 王位를 위협하던 일부 貴族勢力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받아 그의 讓位意思가 表明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 역시 D의 기록에 잘 나타나 있듯이 다른 귀족들의 반대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없었다. 따라서 宣德王은 그의 王位를 둘러싸고 일어난 貴族勢力의 대립속에서 在位하였으며, 그가 원하던 정치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고 하겠다. 그 결과 그의 死後 王位繼承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의 대립이 있게 된다.

이상에서 惠恭王의 死後 宣德王은 過渡期的 성격을 가지고서 貴族들의 추대를 통하여 即位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당시의 政局이 매우 不安定하였음을 알아보았다.

Ⅲ. 元聖王의 即位過程

그러면 계속해서 宣德王의 死後 王位繼承을 둘러싸고 일어난 對立에 대하여 알아보자. 이 때 元聖王 金敬信의 即位가 어떠한 정치적 배경하에서 이루어진 것인가를 살필 수 있을 것이다.

宣德王의 死後 아들이 없자,¹⁷⁾ 王位繼承을 둘러싸고 貴族들 사이에 일어난 對立을 언급하고 있는 기록은 다음과 같다.

15) 李基白, 上大等考, p. 120. D-②에서 「年不順成 民用窮困」이라고 언급되고 있듯이 경제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적인 면도 중요하겠지만 역시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16) 李基白씨는 宣德王代의 정치적 불안에 있어서 金敬信은 周元과 마찬가지로 그 혐의를 받을 수 있는 人物 중의 하나로 보고 있다(上大等考, p. 120). 한편 申澮植씨에 의하면 宣德王이 즉위초에 遜位를 결심한 것은 周元으로 하여금 武烈系를 계승케 하려는 의도였을 것이라 한다(武烈王系의 成立과 活動, p. 132).

17) 三國史記 10, 元聖王 即位條.

E) ① 伊淦金周元 初爲上宰 王爲角干 居二宰 夢脫幘頭 著素笠 把十二絃琴 入於天官寺井中 覺而使人占之 曰脫幘頭者 失職之兆 把琴者 著枷之兆 入井入獄之兆 王聞之甚患 杜門不出 于時阿殄餘三「或本餘山」來通謁 王辭以疾不出 再通曰 願得一見 王諾之 阿殄曰 公所忌何事 王具說占夢之由 阿殄與拜曰 此乃吉祥之夢 公若登大位而不遺我 則爲公解之 王乃辟禁左右而請解之 曰 脫幘頭者 人無居上也 著素笠者 冕旒之兆也 把十二絃琴者 十二孫傳世之兆也 入天官井 入宮禁之瑞也 王曰 上有周元 何居上位 阿殄曰 請密祀北川神可矣 從之 未幾宣德王崩 國人欲奉周元爲王 將迎入宮 家在北川 忽川漲不得渡 王先入宮即位 上宰之徒衆 皆來附之 拜賀新登之位 是爲元聖大王 諱敬信(三國遺事 2, 紀異, 元聖大王)

② 及宣德薨 無子 群臣議後 欲立王之族子周元 周元於宅京北二十里 會大雨 闊川水漲 周元不得渡 或曰 即人君大位 固非人謀 今日暴雨 天其或者不欲立周元乎 今上大等敬信 前王之弟 德望素高 有人君之體 於是 衆議翕然 立之繼位 既而雨止 國人皆呼萬歲(三國史記 10, 元聖王 即位條)

위의 두 기록을 통하여 볼 때 宣德王이 죽자 金周元과 金敬信이 王位를 놓고 對立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때 먼저 王位에 오르도록 귀족들의 추대를 받은 人物은 바로 金周元이었음을, 그러나 실제로 即位한 것은 金敬信이었음을 三國貴事와 三國史記의 두 기록은 또한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는 宣德王의 死後 金周元은 오히려 정당한 王位繼承者로 인정되었는데, 金敬信이 그 位를 權道로써 빼앗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¹⁸⁾ 즉, 당시 上大等 金敬信은 정당한 王位繼承權者가 없는 경우 後繼者임을 주장할 수 있는 지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었으며, 金周元이 유력했던 것은 王位繼承의 序列上的 정당한 계승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金敬信은 上大等이라는 職位를 이용하여, 上大等이 가지는 정치적 힘에 의하여 억지로 不當하게도 王位에 오른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金周元과 달리 金敬信은 능히 實力으로 後繼者가 될 수 있는 존재였다고 보고서 元聖王의 即位過程을 살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과연 宣德王의 死後 王位繼承의 序列이 있었으며, 그 서열에서

18) 李基白, 上大等考, pp. 119~120.

金敬信 대신에 金周元이 정당한 왕위계승상의 제일인자였는가 하는 점을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王位繼承이 불가능한 경우에 스스로 王이 되기를 바랄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추대되기도 한 政治的 存在은 바로 上大等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¹⁹⁾

그것은 다음의 史料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다. 眞德女王이 돌아간 뒤의 王位推戴에 관한 기록이다.

F) 一及眞德薨 群臣請關川伊飡攝政 關川固讓曰 臣老矣 無德行可稱 今之德望崇重 莫若春秋公 實可謂濟世英傑矣 遂奉爲公 春秋三讓 不得已而就位(三國史記 5, 太宗武烈王 即位條)

위의 기록은 宣德王의 死後 전개된 정치적 상황과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의하면 당시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金春秋 보다 먼저 貴族會議의 추대를 받은 것은 關川이었다. 비록 이 기록에는 攝政이라고 되어 있으나, 그것은 곧 關川의 王位推戴로서, 이 때 그는 上大等이었다.²⁰⁾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에서 볼 때 宣德王의 死後 王位繼承의 서열이 있었다면 金周元 보다 유력했던 것은 오히려 上大等 金敬信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한 까닭에 E—①의 說話에서 또한 E—②의 或者는 金敬信이 王位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닐까 한다. 더우기 이러한 점은 金周元과 金敬信의 宣德王과의 혈연관계에서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E—②에서 金周元은 宣德王의 族子라고 설명되고 있는데 반하여 金敬信은 前王의 弟라고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기록의 신빙성 문제가 있지만,²¹⁾ 이

19) 李基白, 앞의 논문, pp. 99~101.

20) 李基白, 앞의 논문, p. 100. 한편 金春秋가 權力을 장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宰相制度를 만들고 자기가 宰相에 취임하였을 것이라는 견해(木村誠, 新羅の宰相制度, 東京都立大 人文學報 118, 1977, pp. 33~35)는 金周元이 宣德王代 上宰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과 관련시켜 볼 때 두 사람의 정치적 입장이 비슷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시사를 주고 있어 주목된다. 이 때 關川과 金敬信의 政治的 位置도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21) 三國史記에 宣德王이 奈勿王의 10世孫이요, 元聖王이 奈勿王의 12世孫이라고

것은 혈연적인 관계에서도 金敬信은 宣德王과 보다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이 또한 王位繼承에 있어서 金敬信이 유력하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되는 것과 달리 金敬信은 자신의 政治的 實力으로 王位에 오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王位에 오를 수 있는 政治的 實力이라는 측면에서 金周元과 金敬信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사실은 쉽게 짐작된다. 金周元이 가지고 있었을 정치적 힘이란 E-①에서 언급되고 있듯이 당시 그가 머물렀던 上宰의 職과 깊은 관련이 있다. 金周元이 上宰에 임명된 시기는 대체로 宣德王이 即位한 후 侍中에서 물러남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²²⁾ 이 때 金周元이 在任한 上宰의 位란 E-①에서 설명되고 있듯이 上大等 보다 우위의 관직이었고, 또한 특히 中代末과 같이 정치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던 시기에 있어서 權力을 집중하여 상당한 정치적 실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²³⁾ 따라서 宣德王代의 政治에서 實權을 행사한 것은 바로 金周元이었을 것이다.²⁴⁾

한 것이 옳다면 兩者를 兄弟之間이라고 한 것은 의심스러워진다. 그러나 上記 世代數의 계산이 과연 정확한 것인지는 보장할 길이 없다. 혹 李丙癸씨의 추측대로 兩者는 從兄弟間인지도(三國史記 國譯篇, 1977, p. 163) 아니면 母系에 의한 것이었는지도(李基白, 上大等考, p. 114) 모르겠다. 그렇지만 서로가 가까운 관계였음은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22) 일찌기 惠恭王 13년(777) 10월에 侍中에 임명된 金周元은 宣德王이 即位한 후 곧 단행된 人事移動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E-①에 언급된 上宰가 宣德王代 그의 官職인 점으로 보아 侍中에서 물러나면서 곧 上宰에 임명된 것으로 생각된다. 李基東씨에 의하면 이러한 金周元의 上宰 임명은 武烈王系로서 그가 反專制主義運動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p. 155).
- 23) 木村誠, 新羅의 宰相制度, pp. 17~41. 씨는 여기에서 統一新羅時代를 통하여 上大等を 정점으로 하여 왔던 이전의 국가기구의 틀을 넘어서 존재한 宰相의 실태와 기능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宰相은 급속한 권력집중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도화되었고, 실제로 항상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例는 사실 中代末 활동한 金幽을 통하여 충분히 엿볼 수 있다.
- 24) 그렇다면 宣德王代 王位를 위협하며 政局을 不安하게 한 人物은 金敬信 보다 오히려 金周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E—①에 언급되고 있듯이 宣德王代 上大等에 머물고 있던 金敬信은 그의 움직임에 따라 감옥에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당시 그의 우위에 있던 金周元에게 늘 견제를 당하며 위축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때 上大等 金敬信은 자신의 實力에 의하여 王位에 오를 수 없었던 것으로, 오히려 金周元에게는 그것이 가능하였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따라서 宣德王의 死後 金周元이 먼저 王位에 추대된 것은 金敬信 보다는 오히려 金周元이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힘을 이용하여 金敬信 대신에 부당하게 王位에 오를려고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그것은 E—② 기록을 통하여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다. 金周元의 王位繼承이 失敗하자 或者가 王位란 人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 점에서이다. 이 때 人謀란 金周元이 당시 가지고 있었던 정치적 실력을 말해주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또한 宣德王의 死後 王位繼承者를 뽑기 위하여 열린 貴族會議를 통하여서도 그것을 살펴볼 수 있다. E—①, ②의 기록에서는 國人 혹은 群臣이 金周元을 추대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元聖王의 即位 이후 金周元의 勢力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E—①의 기록은 上宰의 徒衆들이 來附했다고 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宣德王의 死後 金周元이 먼저 王位에 추대된 것은 그의 정치적 힘과 그와 관계되는 일부세력의 협력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²⁵⁾

그러나 金周元의 이러한 의도는 성공을 거둘 수 없었다. 金周元의 王位

25) 崔柄憲씨에 의하면 金周元이 多數의 중앙귀족들의 지지를 받아 王位繼承競爭에서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었으며, 宣德王의 死後 和白會議에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우세하여 추대되었다고 한다(新羅 下代社會의 動搖, p. 432). 그러나 上宰의 徒衆이라고 표현된 金周元 보다는 오히려 金敬信의 德望이 金周元 보다 높다면 혹은 金敬信은 人君의 자격이 있어 이에 衆議가 만장일치하여 그를 세워 王位를 계승케 하니 얼마 아니하여 비가 그치고 國人은 모두 만세를 불렀다고 한 말에서 쉽게 짐작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金敬信의 即位는 金周元보다 더 많은 지지세력을 얻은 결과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획득을 위한 노력이 실패되고, 그 대신에 金敬信이 王位에 오를 수 있었던 과정은 E—①, ②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만으로는 자세히 알릴 수 없다. 그렇지만 金周元의 정치적 성격과도 연결시켜서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中代末 太宗武烈王系로서는²⁶⁾ 異例의으로 反專制主義運動에 참가한 金周元은 王位에 오름으로써 中代 專制王權의 傳統을 계승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기 때문이다.²⁷⁾ 이에 金周元은 다른 貴族勢力의 반발과 함께 보다 많은 지지세력을 얻지 못한 채 王位에 오르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金敬信은 이러한 金周元과는 달리 貴族勢力의 통솔자인 上大等으로서 보다 광범위한 支持勢力을 갖고 있었던 것 같다.²⁸⁾ 金敬信이 이와같이 광범위한 세력과 결합되었으리라는 사실은 그와 관련을 맺고 있던 人物을 통하여 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당시 金敬信과 결합된 세력은 어떠한 것일까.

우선 宣德王의 支持勢力이 포함될 것이다. 金敬信 그 자신은 宣德王과 마찬가지로 奈勿王系로서, 宣德王의 弟로 표현될 정도의 가까운 관계였으므로 宣德王과 연결되는 세력은 金敬信을 지지해 주는 세력으로 볼 수 있겠다. 그것은 宣德王의 王位를 위협하던 세력에 대한 반발과도 또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²⁹⁾

다음으로 朴氏勢力을 들 수 있다. 金敬信이 朴氏勢力과 연결되고 있는

26) 그는 太宗武烈王의 六世孫이었다(三國史記 44, 金陽傳).

27) 이러한 점에서 金周元은 金良相 및 金敬信의 정치적 성격과 비교될 수 있을 것이다. 中代의인 요소를 강하게 지닌 金周元과 달리 金良相은 中代와 下代의 복합적인 요소를 함께 지닌 人物로, 金敬信은 완전히 下代의인 성격의 人物로 생각되는 것이다.

28) 여기에서 金敬信은 기존의 연구에서 지적되는 정치적 힘에 의한 억지라기 보다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上大等이란 정치적 지위를 이용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29) 宣德王의 讓位意思 表明은 이미 언급한 대로 宣德王의 讓位를 획책한 세력과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과의 대립에서 비롯된 결과였다. 그러므로 金周元이 宣德王의 王位를 위협하는 세력이었다면 이에 반대하는 세력은 金敬信을 지지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것은

G) 諱敬信 奈勿王十二世孫 母朴氏(三國史記 10, 元聖王 即位條)

라고 하여, 그의 모가 朴氏로서 기록되고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다. 上代와는 달리 統一新羅 이후 王權이 專制化됨에 따라서 眞骨貴族인 朴氏의 세력은 크게 약화되었는데,³⁰⁾ 中代末에 들어와서 다시 세력을 떨쳤던 것이다. 金敬信의 母后勢力이 中代末 葛項寺를 重修한다든지,³¹⁾ 朴氏들이 기술자로서 다른 反專制主義貴族들과 함께 聖德大王神鐘의 제작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³²⁾ 등에서 그것을 알릴 수 있다.

그리고 金敬信은 新金氏勢力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惠恭王代 金敬信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아볼 수 있다. 統一 이후 정치적·사회적으로 계속 몰락하고 있던 金庾信의 後孫들이 처우의 개선을 들고 나왔을 때 金庾信의 墓에 사과를 위하여 파견된 사람이 바로 金敬信이었다.³³⁾ 그런데 이러한 金庾信後孫의 伸冤運動은 당시 反專制主義運動과 깊은 관련이 있었던 것으로 金敬信이 여기에 가담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³⁴⁾ 그러므로 金敬信과 新金氏勢力과의 밀접한 관계는 충분히 짐작된다고 하겠다.

이 밖에 六頭品勢力의 지지도 金敬信은 받았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30) 李基白, 統一新羅와 渤海의 社會, 韓國史講座 1, 古代篇, 1982, pp. 314~315.

31) 金泉 葛項寺는 景德王 17년(758)에 크게 重創되고 있는데, 그것은 새로이 三層의 雙石塔을 造成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塔의 銘文에서 알 수 있다(文明大, 金泉 葛項寺의 石佛坐像의 考察, 東國史學 15·16, 1981, pp. 54~56). 그런데 이 葛項寺의 두 石塔은 모두 元聖王인 外家의 施主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즉 元聖王의 外叔인 言寂法師과 그의 어머니인 繼烏夫人 朴氏 등 세 남매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32) 聖德大王神鐘의 제작에 참가한 기술자는 모두 朴氏로 기록되고 있다. 이들의 신본은 대체로 五頭品인 것으로 보인다(李基白, 新羅 景德王代 華嚴經 寫經關與者에 대한 考察, 歷史學報 83, 1979, p. 136). 그런데 金繼, 金良相, 金體信 등 鐘제작의 책임자는 모두 反專制主義의 政治性格을 가진 人物이었다(拙稿, 統一新羅期 專制王權의 崩壞와 金繼, pp. 128~133).

33) 三國遺事 1, 紀異, 末鄒王·竹葉軍.

34) 李基白, 新羅 惠恭王代의 政治的 變革, pp. 249~250.

E-①의 기록에서 金敬信의 꿈을 풀이한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餘三은 바로 六頭品出身이었기 때문이다.³⁵⁾ 그런데 中代末 이미 六頭品勢力은 執事侍郎을 지낸 金體信에게서 보듯이 王權의 옹호자였다고 보기 보다는 오히려 貴族的 勢力을 부식시키는 발판이 되고 있었다.³⁶⁾ 따라서 餘三의 지혜를 빌어서 上位에 있는 金周元을 물리치고 王位에 오를 수 있었던 金敬信에게 六頭品勢力도 그의 지지세력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그 자신 奈勿王系로서 中代 專制王權에서 소외되었던 金敬信은 대체로 같은 처지에 있던 勢力과 긴밀한 연결을 가지면서, 마침내 이들 귀족의 추대를 통하여서 王位에 오를 수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元聖王은 이러한 그의 即位時 사정으로 인하여 即位初 일정한 동안 王權이 強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³⁷⁾ 元聖王이 即位初 단행한 中侍任命에서 그것을 알아볼 수 있다.

- H) ① 拜伊浚兵部令忠廉爲上大等 伊浚悌恭爲侍中 悌恭免 伊浚世強爲侍中(三國史記 10, 元聖王 元年)
 ② 伊浚悌恭叛 伏誅(同上, 元聖王 7年 正月)

- 35) 李基白, 新羅 六頭品研究, 省谷論叢 2, 1971; 新羅政治社會史研究, pp.53~54.
 36) 新羅 下代에 六頭品 출신이 王權 보다는 貴族勢力과 결합되는 점을 다룬 연구로는 李基白씨의 「新羅 下代の 執事省」이 있다. 그러나 언제부터 六頭品 출신의 정치활동의 방향이 변화되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그것은 中代末 反專制主義 眞骨貴族인 金齒 · 金良相 등이 侍中에 임명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활동과 함께 執事部의 성격 또한 점차로 바뀌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들과 활동한 六頭品 출신의 金體信은 執事侍郎으로서 이들을 도와 聖德大王神籙의 제작에 참여한 바 있었다.
 37) 그러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元聖王의 即位過程과 연결시켜 太子冊封 등 그가 即位한 이후의 정치적 시책은 오히려 專制的인 색채를 농후하게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李基白, 上大等考, p.121). 또한 李基東씨는 元聖王代는 下代の 權力構造를 특징지우는 王室親族集團에 의한 권력장악 · 권력집중의 한 전형이 확립되어 가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p.152).

③ 以宗基爲侍中(同上, 元聖王 6年 正月)

④ 侍中宗基免 大阿湊俊嶽爲侍中(同上, 元聖王 7年 10月)

H—①는 元聖王이 即位한 후 단행한 上大等·侍中の 임명에 관한 기록이다. 이 때 侍中에 임명된 悌恭은 바로 사면을 하였는데, 이후 그는 H—②에 보이듯이 7년(791) 모반을 하다가 伐誅를 당한 人物이다. 한편 侍中에 元聖王은 그와 王位繼承을 둘러싼 對立을 벌였던 金周元의 後孫인 宗基를 6년(790) 임명하고 있음을 H—③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宗基는 H—④에 보이듯 1년 후에 곧바로 물러나고 있다.

이러한 元聖王의 侍中任命에서 주목되는 것은 그가 金周元系를 비롯한 그에 대한 不滿勢力에게 할애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반발을 무마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점이다.³⁸⁾ 더우기 이들의 정치적 반발이란 即位初 단행한 인사이동에 반대하고 이후 모반을 일으킨 悌恭의 태도에서 추측되듯이 바로 元聖王의 政治 특히 即位過程에 대한 不滿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元聖王은 그의 이러한 即位初 전개된 不安한 정치적 상황을 수습하고 나서야 비로소 王權強化를 위한 政策을 실시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³⁹⁾

38) 吳星世는 「新羅 元聖王系의 王位交替」(全海宗紀念史學論叢, 1979, p. 615)에서 仁謙系가 金周元系에서 侍中職을 할애함으로써 그들의 정치적 반발을 무마시키고자 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元聖王의 아들인 憲德王 彥昇이 7년 悌恭을 살해하여 그 공로로 通飡이 되었다는 사실에서도 잘 알 수 있다(三國史記 10, 憲德王 即位條). 한편 金周元系의 세력이 元聖王의 即位 이후 金憲昌의 亂이 일어날 때까지 元聖王系에 대립하는 위협적인 세력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은 尹炳喜씨의 「新羅 下代 均貞系의 王位繼承과 金陽」(歷史學報 96, 1982, pp. 58~60)에서 또한 살펴볼 수 있다.

39) 그것은 金周元系인 宗基의 辭免 이후 元聖王의 아들인 俊嶽 등이 侍中에 임명되는 등 李基東씨에 의하여 이미 잘 지적되고 있듯이 王과 太子를 頂點으로 하여 극히 좁은 범위의 近親王族들이 上大等·兵部令·宰相, 御龍省私臣, 侍中 등 要職을 독점하려고 한 점에서 알 수 있다 하겠다(新羅 下代の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pp. 152~153). 한편 木村誠씨는 이러한 要職을 모두 宰相制度의 테두리 속에 포괄되는 것으로 보면서, 이 元聖王代에 宰相制度가 갖는 權力集中의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었다고 한다(新羅의 宰相制度, pp. 25~33 및 35~38). 그러므로 元聖王의 이러한 王權強化를 위한 노력은 元聖王系

지금까지 宣德王의 死後 이루어진 元聖王의 即位란 金敬信이 다음의 王位繼承者로서의 가능성이 유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實權을 행사하던 金周元에 의하여 일시 제지되었으나 그를 지지하고 있던 貴族勢力의 추대를 통하여 王位에 오를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다.

IV. 맺 음 말

이상에서 元聖王系의 成立과 관련하여 宣德王 · 元聖王의 王位繼承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이들은 모두 上大等으로서, 前王과는 兄弟相續의 경향을 가지고서 自身の 實力에서라기 보다는 貴族勢力의 추대를 받아서 即位할 수 있었음을 공통적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다. 간단히 정리하여 맺음말에 대신하고자 한다.

中代 專制王權의 몰락을 가져다 준 惠恭王의 죽음은 宣德王 金良相의 武力에 의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專制王權을 옹호하던 세력과 反專制主義 세력과의 대립속에서 일어난 惠恭王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당시 金良相의 정치적 위치를 크게 부각시켜 주었다. 여기에는 그가 上大等 등 王位繼承者로서 여러가지로 유리한 점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던 과도기적 성격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이에 貴族勢力의 추대를 받아서 即位할 수 있었다. 그런데 宣德王은 이러한 即位사정으로 인하여 매우 不安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在位할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宣德王의 死後 王位繼承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의 대립이 일어났다. 이 때 대립을 벌인 人物은 金周元과 金敬信이었다. 여기에서 먼저 王位에 추대된 사람은 바로 金周元이었다. 金周元은 당시 그가 가지고 있던 정치적 실력을 바탕으로 억지로 王位에 오르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

自體의 安定을 추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830년대 후반의 苛烈한 王位繼承 爭奪戰의 逮因으로도 작용하였던 것 같다(李基東, 新羅 下代의 王位繼承과 政治過程, p. 154).

한 金周元의 의도는 좌절되고, 金敬信이 마침내 王位에 오르게 되었다. 그것은 완전히 下代的인 정치성격을 가지고 있던 金敬信이 金周元 보다 많은 貴族勢力의 지지를 획득한 까닭이었다. 그 결과 元聖王 역시 宣德王과 마찬가지로 即位初 일정기간 동안 王權이 강하지 못하였지만, 王權強化를 위한 노력을 성공시켜 下代政權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